

# 제주특별자치도와 안동권문의 유배인

지난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안동권씨 종친회가 창립되었다. 제주도에 안동권문의 족친들이 들어가 거주하면서 가까운 일가끼리의 모임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아우르는 종친회 창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제주에는 예부터 고씨, 양씨, 부씨 세 성씨가 대성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안동권씨는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처음 제주도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다. 고려고종(1192~1259) 때에 탐라군을 제주로 개편한 이래 1294년(충렬왕 20년)에는 다시 탐라에서 제주로 부르기 시작했다. 조선 태조 때는 제주목을 신설하여 목사를 두었고 1416년(태종 16년)에는 행정구역으로 정의현과 대정현을 설치한 바 있다.

최근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자 제주도는 유배지로 유명해졌다. 섬이 본격적으로 유배지로 활용된 것은 조선전기보다는 조선후기에 집중됐다. 조선시대 전체 유배인은 약 7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 200여명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 특히 대정현은 대표적인 유배지로서 주로 중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곳이었다.

제주도 유배길은 세 노선이 주로 이용되었다. 첫째는 해남에서 완도 노화도-보길도를 거쳐 추자도를 지나 제주도로 가는 길. 둘째는 강진에서 완도 노화도-보길도를 거쳐 제주도로 가는 길. 셋째는 영암 구림에서 목포를 거쳐 진도를 지나 추자도로 가는 길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제주도와 관련하여 맨 처음 등장하는 안동권문의 선조는 대정현감 권극중이다. 1653년(효종 4년 8월 6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배 한척이 제주 해안에 닿자 대정현감 권극중이 조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바로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인 하멜이다.

안동권문 중에 제주도와 유배로 인연을 맺고 있는 선조들은 수암 권상하(시중공파 27세, 1641-1721) 집안이다. 이 시기는 효종(재위 1649-1659)에서부터 정조(1776-1800)까지 약 150여년이 해당된다. 권상하의 아버지는 권격(1620-1671)이다. 권격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권상하, 권상명, 권상유가 그들이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이다. 동생들 역시 서인 노론의 영수 송시열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했다. 권격 또한 사간원 정언과 충청도도사를 지낸 바 있으며 1차 예송논쟁 때 서인의 선봉장으로 서 반대파 윤선도 등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다. 제2차 예송논쟁으로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후 51년 만에 남인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송시열은 덕원으로 유배갔다.(1675) 권상하는 청풍의 산중에 은거하며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면서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 계승에 힘썼다. 그의 제자 이간과 한원진 등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전개되는 이른바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인 호락논변(湖洛論辨)이라는 학술토론 문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갔다 해배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하러 갔다가 정읍에서 스승의 임종을 지켜야만 했다. 이때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과산 화양동에 만동묘(萬東廟)와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을 제향했다.

권격의 후손들 중에서 제주도와 가장 먼저 인연을 맺은 사람은 권혁(權赫, 1694-1759)이다. 권혁은 권상하의 막내 동생 권상유의 아들이다. 권상유는 주자학을 비판하며 송시열과 사상적 맞대결을 펼친 윤후와 반주자학적 경진해석으로 노론에 짝한 박세당의 학문을 사문난적이라고 공격하는 내용의 변파록

(辨破錄)을 작성하기도 했다. 권혁은 “임금의 덕(德)이 모자란 데가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고 시정(時政)이 실수가 있어도 고치지 못하며 사리(事理)의 시비(是非)는 논하지 않고서 군상(君上)이 명령한 것을 한결같이 보고서 감히 한 마디도 가부(可否)를 말하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시행하는 일만 삼간다 면, 전하께서는 위에서 혼자 운영하시고, 유사(有司)는 아래에서 받들어 시행하니, 이와 같이 하면 만족할 것인데, 삼사(三司)는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영조 6년 8월 28일, 1730) 라고 상소했다가 외직인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좌천된다. 약 3개월 후 교리로 복귀한다. 이번에는 “인군(人君)이 스스로 성군(聖君)이라고 여기는 병은 성군의 위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영조 8년 3월 28일, 1732)고 직격탄을 날린다. 집권 초부터 영조는 탕평정치를 추진했다. 탕평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고 어느 당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통치술이다. 권혁은 영조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탕평정치의 역린(逆鱗)을 건넌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머나먼 제주도 대정현감으로 전보되기에 이른다. 이때 현감으로 발령은 낯지만 유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권혁을 대정현감으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당하다는 상소가 5번 올라가는데 그 중 부수찬 김상석이 “권혁(權赫)을 섬에다 귀양 보내도록 한 명(命)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의정 조문걸이 “권혁이 중로(中路)에서 병이 걸려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멀리 바다를 건너게 한다면 죽어서 돌아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영조 8년 5월 20일)라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권혁은 유배지 제주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상태에서 빗발치는 상소로 유배지가 해남으로 변경되고 있다. 권혁은 경감감사로 있을 때(영조 22년 1746년) 청도군 운문면 정자동 일대를 수탈하여 2세 낭중공의 실전

송논쟁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무소(辨無謬所)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장남은 약 7000여 편의 시를 지어 한 국 시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옥소 권섭(1671-1759)이다. 둘째 권영은 체격이 장대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나이 60에 가까워 비로소 과거에 급제해 1733년에 영조의 실정을 상소(영조 9년 1월 14일)하다 밧보여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상소는 이렇다. “전하께서 신하를 부리는 것은 마치 종을 부리는 것과 같아 조금만 거역함이 있으면 곧 꾸짖으니...반드시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下教)를 내리시니, 신하가 된 자들은...두려워하고 겁만 내면서 염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남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현명하고 우매한 자를 막론하고 뒤섞어 마구 등용하면서 그것을 편당을 얹은 효과라고 인정 평정치를 추진했다. 탕평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고 어느 당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통치술이다. 권혁은 영조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탕평정치의 역린(逆鱗)을 건넌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머나먼 제주도 대정현감으로 전보되기에 이른다. 이때 현감으로 발령은 낯지만 유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권혁을 대정현감으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당하다는 상소가 5번 올라가는데 그 중 부수찬 김상석이 “권혁(權赫)을 섬에다 귀양 보내도록 한 명(命)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의정 조문걸이 “권혁이 중로(中路)에서 병이 걸려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멀리 바다를 건너게 한다면 죽어서 돌아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영조 8년 5월 20일)라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권혁은 유배지 제주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상태에서 빗발치는 상소로 유배지가 해남으로 변경되고 있다. 권혁은 경감감사로 있을 때(영조 22년 1746년) 청도군 운문면 정자동 일대를 수탈하여 2세 낭중공의 실전



청은 권영의 명정

된 묘소를 찾아보게 하였고 이로 인해 낭중공의 제단과 재사 등이 있게 한 장본인이다. 그는 정조 20년(1796)에 청백리로 녹신 뿔 만큼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도 유배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권영(權榮, 1678-1745)이다. 권영은 권격의 둘째 아들 권상명의 아들이다. 권상명은 1674년 2차 예



송논쟁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무소(辨無謬所)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장남은 약 7000여 편의 시를 지어 한 국 시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옥소 권섭(1671-1759)이다. 둘째 권영은 체격이 장대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나이 60에 가까워 비로소 과거에 급제해 1733년에 영조의 실정을 상소(영조 9년 1월 14일)하다 밧보여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상소는 이렇다. “전하께서 신하를 부리는 것은 마치 종을 부리는 것과 같아 조금만 거역함이 있으면 곧 꾸짖으니...반드시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下教)를 내리시니, 신하가 된 자들은...두려워하고 겁만 내면서 염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남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현명하고 우매한 자를 막론하고 뒤섞어 마구 등용하면서 그것을 편당을 얹은 효과라고 인정 평정치를 추진했다. 탕평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고 어느 당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통치술이다. 권혁은 영조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탕평정치의 역린(逆鱗)을 건넌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머나먼 제주도 대정현감으로 전보되기에 이른다. 이때 현감으로 발령은 낯지만 유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권혁을 대정현감으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당하다는 상소가 5번 올라가는데 그 중 부수찬 김상석이 “권혁(權赫)을 섬에다 귀양 보내도록 한 명(命)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의정 조문걸이 “권혁이 중로(中路)에서 병이 걸려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멀리 바다를 건너게 한다면 죽어서 돌아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영조 8년 5월 20일)라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권혁은 유배지 제주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상태에서 빗발치는 상소로 유배지가 해남으로 변경되고 있다. 권혁은 경감감사로 있을 때(영조 22년 1746년) 청도군 운문면 정자동 일대를 수탈하여 2세 낭중공의 실전

송논쟁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무소(辨無謬所)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장남은 약 7000여 편의 시를 지어 한 국 시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옥소 권섭(1671-1759)이다. 둘째 권영은 체격이 장대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나이 60에 가까워 비로소 과거에 급제해 1733년에 영조의 실정을 상소(영조 9년 1월 14일)하다 밧보여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상소는 이렇다. “전하께서 신하를 부리는 것은 마치 종을 부리는 것과 같아 조금만 거역함이 있으면 곧 꾸짖으니...반드시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下教)를 내리시니, 신하가 된 자들은...두려워하고 겁만 내면서 염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남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현명하고 우매한 자를 막론하고 뒤섞어 마구 등용하면서 그것을 편당을 얹은 효과라고 인정 평정치를 추진했다. 탕평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고 어느 당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통치술이다. 권혁은 영조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탕평정치의 역린(逆鱗)을 건넌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머나먼 제주도 대정현감으로 전보되기에 이른다. 이때 현감으로 발령은 낯지만 유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권혁을 대정현감으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당하다는 상소가 5번 올라가는데 그 중 부수찬 김상석이 “권혁(權赫)을 섬에다 귀양 보내도록 한 명(命)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의정 조문걸이 “권혁이 중로(中路)에서 병이 걸려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멀리 바다를 건너게 한다면 죽어서 돌아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영조 8년 5월 20일)라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권혁은 유배지 제주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상태에서 빗발치는 상소로 유배지가 해남으로 변경되고 있다. 권혁은 경감감사로 있을 때(영조 22년 1746년) 청도군 운문면 정자동 일대를 수탈하여 2세 낭중공의 실전

송논쟁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무소(辨無謬所)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장남은 약 7000여 편의 시를 지어 한 국 시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옥소 권섭(1671-1759)이다. 둘째 권영은 체격이 장대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나이 60에 가까워 비로소 과거에 급제해 1733년에 영조의 실정을 상소(영조 9년 1월 14일)하다 밧보여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상소는 이렇다. “전하께서 신하를 부리는 것은 마치 종을 부리는 것과 같아 조금만 거역함이 있으면 곧 꾸짖으니...반드시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下教)를 내리시니, 신하가 된 자들은...두려워하고 겁만 내면서 염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남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현명하고 우매한 자를 막론하고 뒤섞어 마구 등용하면서 그것을 편당을 얹은 효과라고 인정 평정치를 추진했다. 탕평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고 어느 당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통치술이다. 권혁은 영조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탕평정치의 역린(逆鱗)을 건넌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머나먼 제주도 대정현감으로 전보되기에 이른다. 이때 현감으로 발령은 낯지만 유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권혁을 대정현감으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당하다는 상소가 5번 올라가는데 그 중 부수찬 김상석이 “권혁(權赫)을 섬에다 귀양 보내도록 한 명(命)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의정 조문걸이 “권혁이 중로(中路)에서 병이 걸려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멀리 바다를 건너게 한다면 죽어서 돌아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영조 8년 5월 20일)라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권혁은 유배지 제주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상태에서 빗발치는 상소로 유배지가 해남으로 변경되고 있다. 권혁은 경감감사로 있을 때(영조 22년 1746년) 청도군 운문면 정자동 일대를 수탈하여 2세 낭중공의 실전

송논쟁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무소(辨無謬所)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장남은 약 7000여 편의 시를 지어 한 국 시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옥소 권섭(1671-1759)이다. 둘째 권영은 체격이 장대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나이 60에 가까워 비로소 과거에 급제해 1733년에 영조의 실정을 상소(영조 9년 1월 14일)하다 밧보여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상소는 이렇다. “전하께서 신하를 부리는 것은 마치 종을 부리는 것과 같아 조금만 거역함이 있으면 곧 꾸짖으니...반드시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下教)를 내리시니, 신하가 된 자들은...두려워하고 겁만 내면서 염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남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현명하고 우매한 자를 막론하고 뒤섞어 마구 등용하면서 그것을 편당을 얹은 효과라고 인정 평정치를 추진했다. 탕평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고 어느 당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통치술이다. 권혁은 영조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탕평정치의 역린(逆鱗)을 건넌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머나먼 제주도 대정현감으로 전보되기에 이른다. 이때 현감으로 발령은 낯지만 유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권혁을 대정현감으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당하다는 상소가 5번 올라가는데 그 중 부수찬 김상석이 “권혁(權赫)을 섬에다 귀양 보내도록 한 명(命)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의정 조문걸이 “권혁이 중로(中路)에서 병이 걸려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멀리 바다를 건너게 한다면 죽어서 돌아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영조 8년 5월 20일)라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권혁은 유배지 제주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상태에서 빗발치는 상소로 유배지가 해남으로 변경되고 있다. 권혁은 경감감사로 있을 때(영조 22년 1746년) 청도군 운문면 정자동 일대를 수탈하여 2세 낭중공의 실전



이 진소(陳疏)하여 《유근록(裕昆錄)》을 철폐(毀破)하기를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영조 45년 5월 10일, 1769)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얼마 후 권진응이 <유근록>을 조목조목 따지며 “신 권상하는 송시열을 섬기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父祖)처럼 보았는데... 너무나 신의 증조에 대해 석연치 않은 것이 있기에 모든 사람이 듣고서 당황하지 않는 이가 없다”(영조 47년 3월 12일, 1771)고 상소했다. 탕평정치 한다고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증조부까지 당파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거였다. 권진응은 여지없이 대정현에 귀양 갈 수밖에 없었다.(3월14일) 그는 송시열이 제주도 유배 중에 머물



우암 송시열 유허비

던 가옥을 돌아보고 지역유지와 유림에게 유허비를 세우기를 제안하고 그 비문을 썼다. 현재 제주시 이도 1동 오현단(五賢壇)에 남아 있

다. 1772년 나이 60이 넘었다고 특별 사면되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권영(權穎)이 1766년(영조 42년 6월 17일) 대정현감 보직을 받고 제주도로 귀양을 간 기록도 보인다. 1773년에는 권영(權穎)이 “선비가 점점 어긋나고 그릇됨은 오로지 과거의 빈번한 때문”이라고 상소했다가 형장(刑杖)을 맞고 추자도(楸子島)에 유배되었다.(영조 49년 7월 17일) 권일신은 1791년 천주교 박해로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선고받았으나 옥중에서 회개하는 글을 짓자 유배지가 예산으로 변경되었다.(정조 15년 11월 16일) 예산으로 가던 중 장독으로 인해 주막에서 사망했다.

조선후기는 사람들이 동인, 서

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의 정치적 과발들로 분열하여 권력다툼을 했던 소위 붕당정치의 시대였다. 이 붕당정치는 숙종의 환국정치로 거의 와해되었다. 이런 정치적 기반 위에서 영조와 정조는 탕평정치를 추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으로 특정인을 추방하고 격리하는 유배문화가 발달했다. 그 최전선은 제주도였다. 제주도로 유배가는 안동권문의 선조들은 주로 권력의 후손들이었다. 서인과 노론이라고 하는 정치적 위치가 그들에게 크게 작용한 듯하다. 유배문화는 독특하다. 지리적 거리는 정치적 거리와 비례했다. 그렇다면 안동권문 중에 제주도 입도조는 과연 누구일까? 편집국장 권행완

www.semyung.ac.kr

## 대학원의 참대학 시명대!

학부생경험중심교육을  
서시상에 포괄치다

학생경험중심 NO.1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 안내 민승CEO 과정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은 지난 1996년 8월 제1기 고위관리자과정 모집을 시작으로 2006년 8월 10기 수료까지 총 443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였으며, 다변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신규과정으로 민승CEO 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민승CEO과정은 보고 설망자이신 故 朴 權 영은 박사님의 교육이념을 받들어 지역사회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최고 경영자 및 고위행정관리자를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본국의 발전에 기여할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8년 3월 현재 제17기 과정에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우여러분의 지식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